



대기업은 2년차인 김민석(28)은 최근 직장생활 그만두고 자기사업을 구상하며 "창의의 비효율에 대해"라고 말한다. "부업으로 시작해서 본업으로 삼아"라는 말을 하며, "내가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지 않았을 때, "이차 40대 후반이면 내사"를 해야 하는 생각이었는데, "내가 기업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보며 기업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고 말한다. "내가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지 않았을 때, "이차 40대 후반이면 내사"를 해야 하는 생각이었는데, "내가 기업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보며 기업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고 말한다.

신세대는 직장에 대한 생각도 기업체와 다르다. "남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부서 못마땅” 사직
취업난이다. 구직난이다. 하여 일단 일사부터 하고보자. 월 임금 200만 원이 넘는 중소기업에 있지만 한 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입사후 배치된 계열사나 부서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부서를 포기하는 사람이 23%나 된다.

정정호(27)는 자신의 진정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직장을 옮긴다. "내가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지 않았을 때, "이차 40대 후반이면 내사"를 해야 하는 생각이었는데, "내가 기업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보며 기업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고 말한다.

다행히도 대기업에 다니는 김민석은 "내가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지 않았을 때, "이차 40대 후반이면 내사"를 해야 하는 생각이었는데, "내가 기업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보며 기업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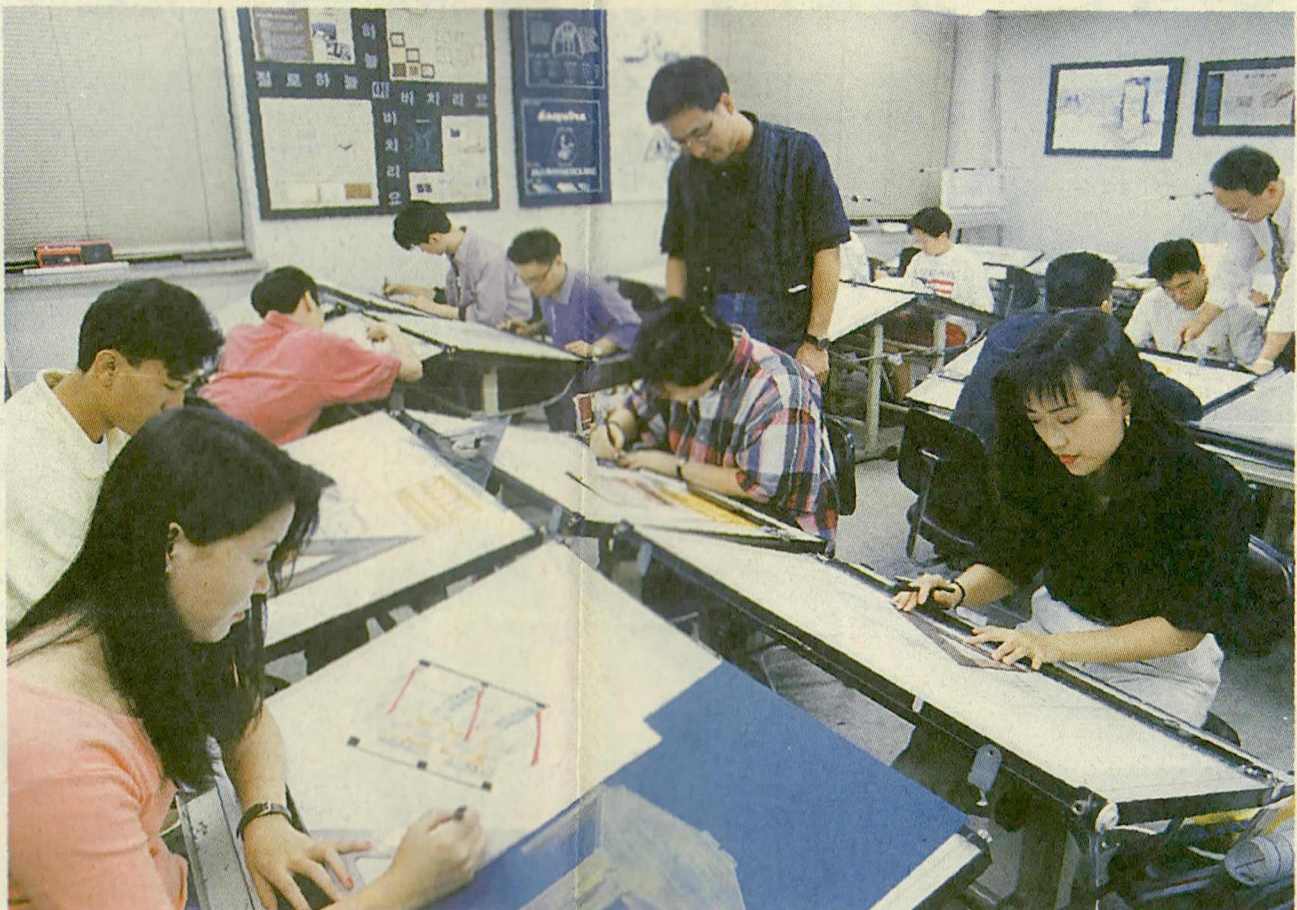
“대기업 간판보다 適性이 중요”

“성취감 얻고 여가즐기자” 전문-자유직 선호

耕勲씨는 말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수백대 1에 달하던 고시경쟁률이 90년대 들어 1백대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경쟁률이 낮아지면 해를 보면 고시에 신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망직업 1백가지' '나의 취업' 등 취업관련책을 쓴 그는 그대신 신세라는 자각을 갖출 전문직 자유직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노력만큼 대우를”
대기업 젊은 직장인 사이에 "자격을 하나쯤 따놓자"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도 이같은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따 놓았다가 언제라도 자신의 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자는 생각이다.

직장인「홀로서기」자격증따기 유



『꼭짜인 기업조직보다는 창의력을 발휘하며 발로 뛸수 있는「열린 직장」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세대 金昇柱 취업담당관(사진)은 이 때문에



무역 서비스를 3차산업에 몰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제조업 기

“단기「승부」집착말길...”

연세대 취업담당관 金昇柱

인터
터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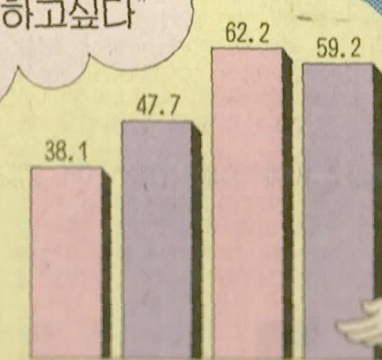
는 정도 큰 매력이라는 것이다. 요즘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와 광고사가 인기직종으로 꼽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대학의 취업담당관은 추세를 대략적으로 짚어 준다.

등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인물고지" "광고고지"를 붙이고 취업준생까지 생긴 것도 이들 직종이 사회적 영향과 함께 전문직과 자유직에의 선호를 동시에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다. "연인" "질투" 등 TV드라마와 광고에서 실재이상으로

마리나 디자인 학원에서 인테리어디자인을 공부하는 젊은이들. 자격증과 전문기술을 가지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선호하는 신세대가 늘고 있다. (李勳求)

20代 現職場이

“위험성이 있더라도 내 사업을 하고 싶다”
(단위: %)



“대기업 간판보다 適性이 중요

“성취감 얻고 여가즐기자” 전문-자유직 선호

노력만 하면 대우를
대기업 젊은 직장인 사이에
『자격증 하나쯤 따놓자』는 말
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도 이같은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따 놓았다가
언제라도 자신의 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자는 생각이다.

鄭光植실장 30의 얘기다.

그는 전국 3백여개 이벤트 회사의 상담수가 신세대에 의해 움지이는 것을 "늘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언제나 출제같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 젊음이 성숙에 맞는것 같다"고 분석했다. 자기책임이라 자신 의 시간과 일을 조절할수 있다

『꼭짜인 기업조직보다는 창의력을 발휘하며 발로 뛸수 있는「열린 직장」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세대 金弄柱취업담당관(사진)은 이 때문에



무역 서비스등 3차산업에 물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제조업 기피는 공대생들도 마찬가지여서 생산현장보다는 시스템엔지니어쪽을 원한다는 것이다.

욕심많은 세대의 다양
이지만 모든 산업의 뿌리
하고 꽃과 열매만 찾는
당관은 지적했다.

『젊은시절의 성취욕구는
체를 인생의 승부수로
소리를 내고 싶다는 생각
입니다』
그는 평생직업을 선택
만족뿐 아니라 타인에
공연을 보고 깊게 따져
다고 조언했다.

耕勲씨는 말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수백대에 달하던 고시경쟁률이 90년대 들어 1백대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권력 명에 富가 한번에 해결되던 고시에 신세대는 더 이상 매력은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유망직업 1백가지』나의 취업일기 등 취업관련책을 쓴 그는 그대신 신세대는 자격증을 갖춘 전문직 자유직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에스과
이어의 캐주얼기성복 「포리랜
서」는 구수되기 싫어하고 돌립
적이며 절제된 일을 원하는 20
대 후반 및 30대 초반 남녀를 겨
냥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또한
공통점을 던져준다.

「자기 스타일과 아이디어로 노
련한만큼 대우받기를 원하는
패문이지요. 조직사회에서는 혼
자 두는 러지기가 어렵지 않습
니까」

1년전 직장을 나와 결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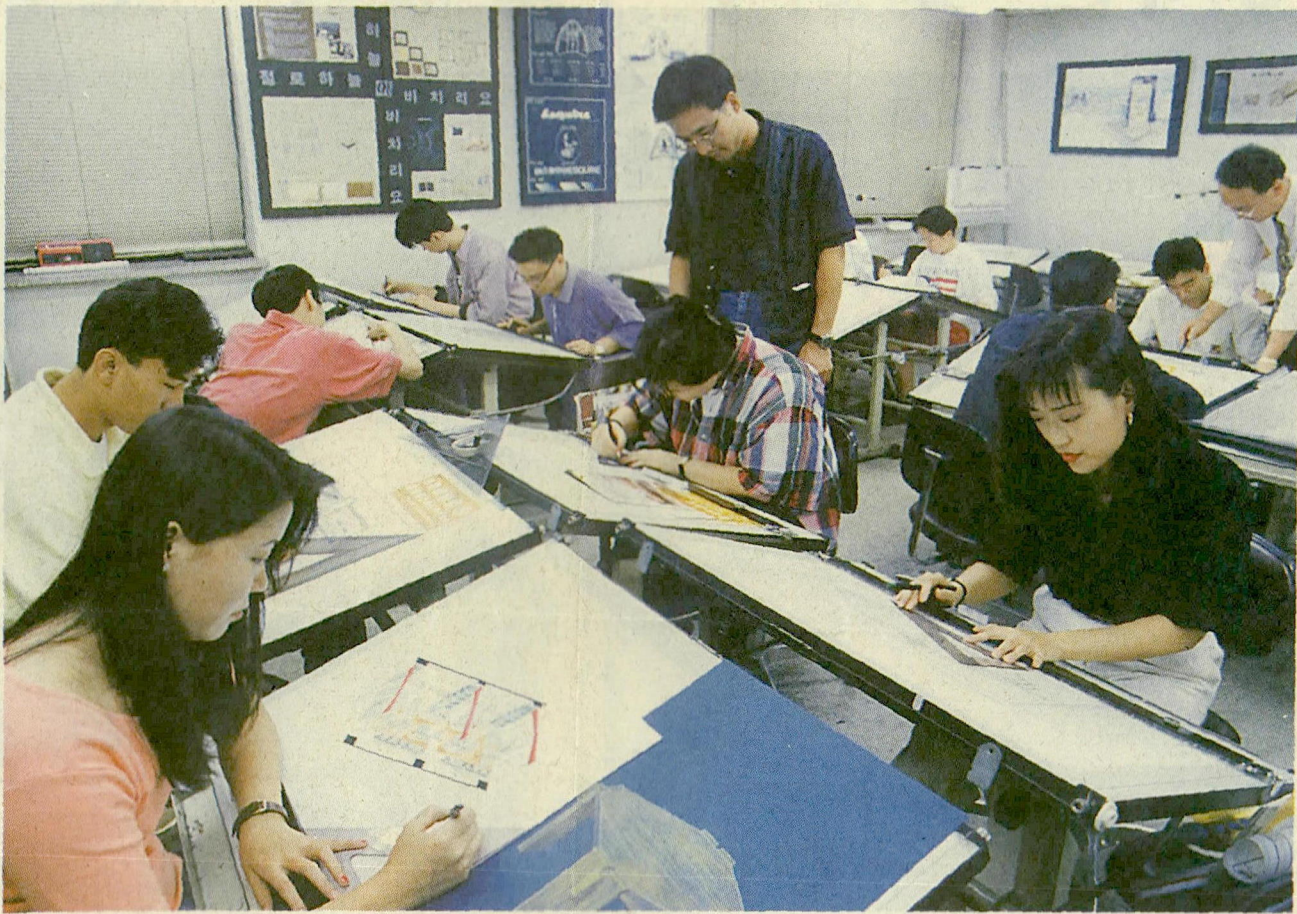
는 점도 큰 매력이라는 것이다.
요즘 방송 신문 잡지등 언론
매체와 광고사가 인기직종으로

화려하게 그려질 정도다.
취업을 준비하는 열력
점차 내려가는 추세다.

오랜 경기 침체로 고향력 취
업난이 갈수록 더해지면서 실
업자가 늘고 있는 한편, 일부에

다

직장인 홀로서기 자격증 따기 유행



들창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열녀고시」 「광고고시」로 불리고 취업채수생까지 생긴 것도 이들 직종이 사회적 역할과 학과개전문과와 자유직의의 선충을 함께 동시에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다. 「연인」 「지루」 등 TV 드라마와 라마와 광고에서 실재이상이 된

마리나 디자인 학원에서
인테리어디자인을 공부
하는 젊은이들. 자격증과
전문기술을 가지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선
호하는 신세대가 늘고
있다. (李勳求)

시험때가 아니어도 대학교서
관이 만원인 것은 이같은 이유
가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정보처리부영영의
디자인과 각종 직업능력을 하
는 학생들이 성인이기도 하
다. 평생직장을 원하는데 남
구벌이 사라진 것은 물의이다.

적성 및 자질이 다르면 과
히 포기하고 기쁨을 의하는 청
소인이 되고 있는가 하면, 대
취업심사를 받았는데 화선도 2,
3화선도 1로 붙어 있고 있다.
연세대 경영학과 4학년의 한
화선(23)은 “화선도 2, 3으로
떨어졌다(올게 말하면) 남들만
끼하다가 졸업반이 됐는데 영
악한 후배들이 1, 2화선부터
타 자격을 확보하여 영업을
나가고 있을 나를 폄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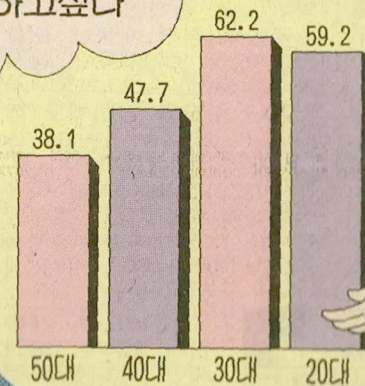
서는 자발적 실업자도 증가하
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스스들을 백수전달이라고 부
르는 이들은 과외와 아르바이트나
자유기고 컴퓨터 등 기술형의
자문 등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려 '월수 백만원인 사람이
백수'라는 웃스갯소리까지 생
겼다. 일하고 싶을때 일하고 싶
여가를 즐기고 싶을때 월수
있는 이들은 우아한 '시간귀족'
이기도 하다.

20대
현재職場이
평생일터

23%

“위험성이 있더라도
내 사업을 하고싶다”
(단위 : %)



제일기획 부설 마케팅연구소가 지난해 전국대도시 직장인 2천 2백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觀」에 따르면 56%가 평상직장에 머물기 보다는 다소 위험성이 있더라도 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20대와 30대에서 응답률이 높았으며 남자가

들수록 부정적이었다.
 현재의 직장을 평생일터로 여
 기는 직장인은 40%에 불과했다.
 20대 23%, 30대 41%, 40대 57%
 50대 67%로 나이가 들수록『그렇
 다』고 대답했으며 경영관리 전문
 직에서 직장만족도가 가장 높았
 다.